



 금융위원회	보도 참고			 금융감독원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형 주(02-2100-2830)	담 당 자	윤 덕 기 사무관(02-2100-2835) 이 은 진 사무관(02-2156-2836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신 진 창(02-2100-2990)		최 치 연 사무관(02-2100-2991)
	금융위 보험과장 손 주 형(02-2100-2960)		현 지 은 사무관(02-2100-2964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민 병 진(02-3145-8020)		홍 석 린 팀장(02-3145-8040)
	금감원 생명보험국장 박 성 기(02-3145-7790)		김 동 규 팀장(02-3145-7795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상 춘(02-3145-6770)		송 평 순 팀장(02-3145-6773)
	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김 태 경(02-3145-7550)		이 창 운 팀장(02-3145-7447) 이 상 민 팀장(02-3145-7552)

제 목 : 2017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(잠정)

□ 금년 8월중 **소금융권***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**+8.8조원**으로 전년 동월(+14.3조원) 대비 **△5.5조원 감소**

* 금융감독원 감독·검사대상(은행, 보험사, 상호금융, 저축은행, 여전사) + 새마을금고

○ 은행권, 제2금융권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각각 **△2.1조원, △3.4조원 감소**(은행 +8.6조원 → +6.5조원, 제2금융권 +5.6조원 → +2.3조원)

□ '17.1~8월 기준으로는 **+58.5조원** 증가하여 전년 동기(+74.6조원) 대비 **△16.2조원 감소** (전년 동기 증가분의 78.3% 수준)

○ 은행권은 전년 동기대비 **△6.9조원**, 제2금융권은 **△9.3조원 감소** (은행 +43.2조원 → +36.3조원, 제2금융권 +31.5조원 → +22.2조원)

1 '17. 8월중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

□ (개 요) '17년 8월중 **소금융권** 가계대출은 **+8.8조원(잠정)** 증가하여 전년 동월(+14.3조원) 대비 증가세 둔화(↓5.5조원)

○ '17년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**+58.5조원(잠정)**으로 전년 동기(+74.6조원) 대비 감소(↓16.2조원)

□ (은행권) '17년 8월중 **+6.5조원(잠정)** 증가하여 전년 동월(+8.6조원) 대비 증가세가 둔화(↓2.1조원)되었고, '17.1~8월 기준으로도 **+36.3조원** 증가하여 전년 동기(+43.2조원)대비 증가규모가 감소(↓6.9조원)

*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(조원): '16/17) : (6월) +6.5/6.1 (7월) +6.3/6.7 (8월) +8.6/6.5 (1~8월) +43.2/36.3

○ 전월(+6.7조원) 대비해서도 **△0.2조원 감소***하였는데, 주택담보대출(+3.1조원)은 전월(+4.8조원)대비 **△1.7조원 감소****한 반면, 기타대출(+3.4조원)은 전월(+1.9조원) 대비 **+1.5조원 증가*****

* 은행권 가계대출 증감(조원) : ('17.4월) +4.6 (5월) +6.3 (6월) +6.1 (7월) +6.7 (8월) +6.5

**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감(조원) : ('17.4월) +3.3 (5월) +3.8 (6월) +4.3 (7월) +4.8 (8월) +3.1

*** 은행권 기타대출 증감(조원) : ('17.4월) +1.3 (5월) +2.5 (6월) +1.8 (7월) +1.9 (8월) +3.4

- (주택담보대출) 신규입주물량 증가* 등에 따른 중도금대출 만기 상환 등으로 집단대출**(↓1.3조원)을 중심으로 감소

* 입주물량(만건, 전국(수도권/비수도권)) : ('17.7월) 3.8(1.8/2.0) (8월) 4.2(2.6/1.6)

** 은행권 집단대출 증감(조원) : ('17.7월) +2.4 (8월) +1.1

- (기타대출) 휴가철 자금수요, 카카오뱅크 영업 본격화*, 일부 은행의 우대금리 상품 출시 등에 따라 신용대출**(↑1.9조원)을 중심으로 증가

* 카카오뱅크(7.27. 영업개시) 월별 신용대출 증가액 : (7월) +0.3조원 → (8월) +1.0조원

** 은행권 신용대출 증감(조원) : ('17.7월) +1.1 (8월) +3.0

□ (제2금융권) '17년 8월중 **+2.3조원(잠정)** 증가하여 전년 동월(+5.6조원) 대비 증가세가 둔화(↓3.4조원)되었고, '17.1~8월 기준으로는 **+22.2조원** 증가하여 전년 동기(+31.5조원)대비 증가규모 감소(↓9.3조원)

*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감(조원): '16/17) : (6월) +5.1/1.5 (7월) +3.7/2.8 (8월) +5.6/2.3 (1~8월) +31.5/22.2

① (상호금융) '17.8월중 증가액은 +0.9조원으로 주택담보대출(+0.5조원)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, 전년 동월(+3.6조원) 및 전월(+1.3조원) 대비 증가규모가 감소(각각 ↓2.7조원, ↓0.4조원)

② (보험) '17.8월중 증가액은 +0.4조원으로 보험계약대출(+0.3조원)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, 전년 동월(+0.7조원) 및 전월(+0.6조원) 대비 증가규모가 감소(각각 ↓0.3조원, ↓0.2조원)

③ (저축은행·여전사) '17.8월중 저축은행은 신용대출(0.1조원)을 중심으로 +0.4조원 증가하였으며, 전년 동월 및 전월 수준(+0.4조원)을 유지

- 여전사의 경우에는 카드대출(0.3조원) 중심으로 0.6조원 증가하여 전년 동월(+0.9조원) 대비 증가규모가 감소(↓0.3조원)

< 가계대출 증감 추이 (금감원 속보치 기준) >

(단위 : 조원)	'16년중 (1~8월)	'16년 8월		'17년중 (1~8월)		'17년 8월		
		상반기	7월	상반기	7월	상반기	7월	
은행	+43.2	+28.3	+6.3	+8.6	+36.3	+23.0	+6.7	+6.5
제2금융권	+31.5	+22.2	+3.7	+5.6	+22.2	+17.1	+2.8	+2.3
상호금융	+19.6	+13.5	+2.5	+3.6	+13.3	+11.2	+1.3	+0.9
신협	+2.7	+1.9	+0.3	+0.5	+0.3	+0.6	△0.2	△0.1
농협	+10.0	+7.2	+1.1	+1.7	+5.8	+4.9	+0.5	+0.4
수협	+0.21	+0.13	+0.02	+0.06	+0.18	+0.18	△0.01	+0.01
산림	+0.22	+0.15	+0.03	+0.04	+0.37	+0.28	+0.05	+0.04
새마을금고	+6.5	+4.2	+1.0	+1.3	+6.7	+5.2	+0.9	+0.6
보험	+4.6	+3.4	+0.4	+0.7	+3.5	+2.5	+0.6	+0.4
저축은행	+3.4	+2.4	+0.6	+0.4	+2.3	+1.5	+0.4	+0.4
여전사	+3.9	+2.8	+0.2	+0.9	+3.1	+1.9	+0.5	+0.6
소금융권합계	+74.6	+50.4	+9.9	+14.3	+58.5	+40.2	+9.5	+8.8

주 :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,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2 | 평가

□ 소 금융업권에 대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 등으로 '17년 8월중 소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 및 전월 대비 증가규모가 둔화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

○ 향후 8.2대책의 효과가 본격화(8.23일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)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*

*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일평균 주택담보대출 신청건수 : (8.1~22일, 시행 前) 1,092건 → (8.23~31일, 시행 後) 464건

□ 다만, 통상 하반기에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, 하반기 분양 물량 증가*로 인한 집담대출 확대, 신용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등이 우려되는 바,

* 분양물량(만호, '17년) (1Q) 5.6 (2Q) 8.1 (3Q) 12.4° (4Q) 10.7°

○ 가계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

□ 또한, 8.2대책의 효과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「가계부채 종합대책」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

공공정보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넓게 들었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